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향후 10년 이끌 ‘VISION 2035’ 공식 선포… 전북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 선도기관으로 도약 다짐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기수, 이하 진흥원)은 28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향후 10년을 이끌어갈 ‘VISION 2035’를 공식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를 비롯해 최형열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키르기스스탄·로완다 주한대사관 관계자, 유관 기관장, 도민과 외국인 대표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되돌아보고 글로벌 협력의 미래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진흥원은 이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공동체 전북 실현’을 미션으로, ‘전북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협력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북 미래가치 세계화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글로벌 도민 양성 등 3대 사업 전략목표와 9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의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10년 성과 사진전, 미래 비전 선포식,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우수 수강생 격려품 전달, 도내 우수 정착 사례 발표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주요 내빈, 외국인 대표, 도민 대표가 함께 참여한 ‘VISION 2035’ 퍼포먼스에서는 LED 지구본을 활용해 전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 비전과 함께 글로벌 공동체 전북의 실현 의지를 표현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지난 10년간



28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열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10주년 기념 행사와 병행한 새만금 한글학당 우수 수강생 격려품 전달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우수 수강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교류, 개발협력, 외국인 지원,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의 국제화를 선도해 왔다. 그동안 39개국 160여 개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만금 한글학당을 통해 2,139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국비 공모사업(ODA)에도 3회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도민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외국인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는 “진흥원이 우리 도 국제교류의 디딤돌 역할과 더불어 도민과 외국인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거듭났다.”며 “앞으로도 진흥원이 도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도의회는 진흥원이 도민의 삶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기준으로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기수 원장은 “작은 교류가 신뢰로, 신뢰가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발전해 온 지난 1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원에농협, 2025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공모 선정

양파 출하조절시설 총 사업비 100억원 · 국비 40억원 확보

익산시 용동면 일원 양파 5000톤 규모 출하조절시설 구축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에 익산원에농협이 2025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은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한 노지채소 품목인 양파, 배추, 마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저온저장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전북 내 대표적인 양파 주

산지로, 재배 면적은 많지만 저장시설이 부족해 매년 과잉 생산 시 산지 폐기나 헐값 판매가 반복되며 농가 소득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는 올해 3월 정부로부터 양파 주산지로 지정받고, 양파공성회를 출범해 본 사업을 신청했다.

이번 공모는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원예산업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원물 확보 여건, 부지 확보 및 자금 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대상을 선정했다. 그 결과 익산원에농협이 사업 수행 역량과 추진 의지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일원(부지 15,791㎡)에 총면적 4,602㎡ 규모의 저온저장고, 예비실, 선별장, 전처리 가공공장,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향후 3년간 총 100억(국비 40억) 원이 투입된다. 완공 시 연간 5,000톤 이상의 양파를 저장·출하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전국 유통망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해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도는 이 시설을 정부의 양

파 수급조절사업과 연계해 적극 활용하고, 전북권역의 대표적인 양파 거점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약재배 확대, 생산비 절감, 산지 폐기 감소 등 전북형 노지채소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 국장은 “채소류 수급조절 시설은 양파 주산지인 익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북권역 계약재배 확대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지채소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 지원을 강화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주택관리사 권익 향안 힘찬 도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 개최

공연 · 표창장 · 감사패 수여… 조직 결속력 제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는 28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안근용 전북도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 및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총회에서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2024년도 결산보고’와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두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참석자들은 주택관리사의 권익 보호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 임주민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협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가수 임지훈의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돋운 가운데, 주택관리사의 권익 향상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관계자 2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는 도내 우수회원 및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등을 통해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의 결속을 도모하고, 정기적으로

주택관리사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근용 전북도회장은 “앞으로도 중용·실용·실익의 가치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리 현장의 어려움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공동주택 임주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원선 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법령 개정 및 관리업무 매뉴얼 표준화 작업, 장기수선제도 개선 작업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더 큰 도전과 기회를 맞이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주택관리사분들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전문성이 존중받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앞으로도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주거환경 개선,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가을철 산불 제로 전북’ 위한 현장 점검

도, 남원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 산불방지센터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28일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에 맞춰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계류장(남원시 대신면 수덕리)과 남원시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가을철 건조한 기후와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도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현장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상황,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근무체계, 무인감시카메라 작동상태 등을 세밀히 살폈다. 또한 동남부산악권(남원·장수·순창)에 배치된 1,500리터급 중형 임차헬기(S-76B)의 출동대기 상태와 장비 점검상황을 확인하며 산불 진화 준비태세를 직접 점검했다.

전북자치도는 AI 디라닝 기반 산불 예방 ICT 플랫폼을 오는 11월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CCTV 영상을 통해 연기와 불꽃을 자동 인식하고, 익산·함양 산림항공관리소, 소방,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체계를 가동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남원시는 산불진화대 35명, 감시원 7명, 기동순찰대 73명 등 총 116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 예찰·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산통제구역(5,801ha) 지정, 등산로 17km 폐쇄, 드론에찰단 운영 등 입체적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산불은 초기 5분, 확산 30분이 생사를 좌우한다”며 “도와 시·군, 산림항공관리소, 군부대,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가을철 산불 제로 전북’을 실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 신항만 크루즈 관광 기본구상 용역 보고회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 위한 여건 조성 필요”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28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향 △기항지 지역 관광자원 연계 전략 △새만금 크루즈 산업 발전 세부 실행

계획 수립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새만금 신항만은 동북아시아의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으로 물류, 교통, 관광과 레저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도 “균형발전 위해 정부 지원 절실”

감사에서는 동부권과 서남권의 불균형 문제로 다뤄졌다. 남원·진안 등 동부권 중심의 특화사업 추진에 비해 고창·정읍·김제 등 서남권의 정주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의원들은 “서남권 개발을 위한 공동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남원시 모노레일 사업 중단으로 400억 원대 배상금이 예상되는 사례를 들어, “지자체장의 정책 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농촌 노인 복지를 위한 ‘이동 장터’ 사업을 복지 플랫폼으로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또한 전북도의 공공기관 종합정립도 평가가 3등급에 머물고

있어, 의원들은 “공직 비위와 갑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청렴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전북 발전을 염원하는 의원들의 애절 어린 질의와 도의 성실한 답변 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도는 “수용할 것은 과감히 수용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의원들의 보충 질의가 이어지며 오후 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균형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전북의 현실과 과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자리로 평가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위한 리더십 교육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8일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에서 도내 소방지휘관 및 간부공무원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 기강 확립 결의대회 및 청렴리더십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공직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소방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직의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자는 뜻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행사는 ‘현대를 살아가는 올곧은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주제로 한 청렴특강과 소방지휘관들의 결의대회로 진행됐다. 참석자 전원은 청렴실천을 다짐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함께했다.

이날 청렴특강은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은석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지 교수는 전 검사이자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국민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실제 공직사회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공직윤리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공유했다. /이만호 기자

“진짜 RE100, 새만금서 시작” | 새만금청, 탄소중립 디지털캠페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허브 새만금의 역할을 국민에게 알리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REal 대한민국, RE100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디지털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마련되었으며, 글로벌 수출기업들의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추진 등에 대해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국민 소통 캠페인이다.

디지털 캠페인은 이달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 ‘응원과 태그’ 챌린지 형태로 운영된다.

캠페인 참여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새만금개발청 공식계정을(@smgstory) 팔로우하고, 해당 계정에 업로드된 캠페인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스토리 공유 및 응원 메시지 작성 후, 인증사진을 댓글로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정산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친환경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11월 12일에 새만금개발청 공식 누리소통망(SNS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동시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이번 디지털 캠페인은 새만금이 지향하는 RE100 기반의 친환경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는 큰 힘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농기원, 지역축제서 화훼 신제품 전시·우수계통 선발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지난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와 연계해 자체 육성한 화훼 신제품 전시 및 우수계통 선발 평가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우리 기술로 개발된 다양한 화훼 신제품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우수계통을 직접 평가·선발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품종 개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품목에는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최근 육성한 국화와 장미 신 품종을 비롯해 색상과 형태가 우수한 개발 계통 등 총 4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장미, 국화 신품종을 활용한

신화환, 꽃꽂이, 생활소품 등 다양한 작품이 함께 전시되어 일상 속 꽃 소비를 촉진하고, 육성 품종의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종묘업체,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선호도 평가’를 통해 화색, 화형, 향기 등 시장성이 높은 우수 계통을 선발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품종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